

국방부와 합의 했다던 31사단·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감감’

광주 군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

민선 5기 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주 도심 내 군 시설 이전 사업이 사실상 장밋빛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주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군 관련 사업을 성급하게 발표하면서 공신력만 추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 군 관련 사업 진행 상황과 과제, 향후 전망을 진단해본다.

◇31사단, 광주시 경계 이전 '동상이동'
=광주시는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북구 오치·삼각동 일원에 있는 31사단을 광주 경계 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준태 전 시장은 당시 “이날 김 장관과 전화를 통해 구두로 31사단 이전을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국방부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 북구청장 등도 곧바로 현형 성명을 내는 등 31사단 이전 소식에 들뜬 모습을 보였다. 1955년 들어선 31사단은 도심 팽창에 따라 이전 여건이熟되었던 것으로, 광주시는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놔다. 하지만 일부에선 광주시가 법적효력이 없는 국방부 장관의 구두 약속을 무리하게 공식화했다며 선거(6·4지방선거)를 겨냥한 무책임한 선심성 발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광주시의 발표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1사단 이전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대 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구두약속을 했다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도 악재다.

◇평동 군 훈련장, 장성군 설득이 관건
=광주시와 육군보병학교는 지난 2011년 4월 평동 군 훈련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51년 포 사격장으로 사용된 지 60여년 만의 일이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정했다.

이후 광주시와 육군은 이전지를 장성 상무대 종합훈련장으로 정하고 장성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장성군으로부터 “추가 부지 매입은 반대하나, 기존 군 부대 영내 이전은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전 관련 용역을 시행한 육군은 “추가 부지 매입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를 광주시에 알려왔으며, 시는 지난 2013년 10월 장성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전사업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장성군은 훈련장 인근 주민 피해(소음·진동) 사전 검증을 요청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지

광주시 선거 겨냥 성급한 발표

禍 자초 공신력 추락만 불러

평동 훈련장 장성군 설득 관건

군공항 이전 진척 그나마 성과

난 3월 국방부에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지자체장과 협의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골자로 한 훈령 개정을 건의했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물건너 가
나=무등산 정상 10만8000㎡ 부지에 위
치한 방공포대의 이전은 광주시민의 숙원
이다. 시는 지난 3월 국방부와 협의를 통
해 방공포대 이전에 합의하고 이전 최적지
를 찾아냈으며, 이전비용 500억원은 국비
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광주 도심 군사시설 이전 대상

이전대상군사시설	면적	추진상황
광산군 평동 군훈련장	246만2000㎡	2011. 4월 광주시↔육군 이전 MOU 2014. 3월 ~ 현재 광주시 국방부에 이전 훈령 개정 건의
북구 31사단	174만㎡	2014. 3월 광주시 이전 계획 발표 2014. 4월 ~ 현재 31사단 “세월호 사고 수습 후 논의”
서구 구국군 통합병원 구기무부대	24만 5000㎡	2014. 2월 광주시↔국방부 국·공유지 양여·교환 협약 2014. 10월 소유권 이전 예정
광산군 광주 군공항	831만 7000㎡	2013. 10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10월 광주시,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 제출 예정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10만 8000㎡	2014. 3월 광주시 “국방부 이전 동의, 이전 최적지도 찾아” 주장 2014. 8월 “사실상 군부대 이전 계획 무산”

이전 시기는 2016년 착공해 2017년 완료한 뒤 2018년 무등산 정상 복원과 함께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선정된 대상지가 어디인지와 이전 일정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무등산 정상 공군 부대에서 최근 지난 2011년부터 매년 4차레씩 개방해오던 무등산 정상마저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017년 공군부대 이전은커녕 매년 개방됐던 무등산 정상마저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부 군 부지 확보와 군 공항 이전 추진은 위안=광주시는 지난 2월 국방부와 '국·공유지 양여·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국방부 소유인 서구 소재 옛 국군 광주병원과 기무부대 토지의 절반인 6만 3000㎡를 비롯한 마루·중앙공원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 나머지 토지는 시 소유인 서창동 양묘장 부지 17만㎡(137억원)

와 교환하기로 했다. 시는 교환차액 10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시와 국방부는 다음

A photograph of three men in dark blue suits sitting around a wooden table, laughing heartily. The man on the left is seen in profile, laughing with his mouth open. The man in the center wears glasses and a green tie, also laughing. The man on the right is holding a small notepad and a pen, laughing while looking towards the other two. The background shows a window with a wooden frame and a traditional Japanese sliding door (shoji).

호남권 상생웃음 활짝

지난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5년 만에 마주한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듯 얼굴 가득한 웃음으로 서로를 반기고 있다. 왼쪽부터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

광주시 '중국과 친해지기' 18개 사업 펼친다

문화원 분원 유치·특화거리 조성 등 4년간 71억 투입

광주시가 민선 6기 핵심사업인 ‘중국과 친해지기(차이나 프렌들리)’사업의 밑그림을 내놴다.

광주시는 21일 “6대 추진전략,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중국과 친해지기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4년동안 7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업으로는 ▲광주권 대중국 의
료관광 유치 활성화 ▲중국어 인
문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전당대
중국어 유치 거점 공간화 ▲광주·전
남 공동 차이나 관광벨트 구축 ▲중
국매체 활용 광주도시브랜드 등 홍보
▲친광

주 네트워크 활용한 대중국 관계마케팅
▲정율성 사적지 등 주변 정비 ▲정율성
한중음악제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
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국문화원 본원 유지 ▲중국 특화거리 조성 ▲차이나 프렌들리 센터 설치 ▲중국인 문화의 날 행사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등 교류 활성화 ▲문화전당 연계 중국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운영 ▲민간 주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국 교류협력지역의 다변화·다양화 추진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문화거주지 사업 추진 ▲중국우호교류위원회 설립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

시는 특히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와 전략으로 광주권 의료기관에서 선진의료기술인 관절, 심장병, 종양 등의 치료분야를 특화하는 한편 노인층 건강진단 등을 활용한 맞춤형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개관하는 문화전당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전당권 내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한중 예술인들의 만남·교류·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옛 조흥은행 ~ 광주극장 ~ 명성예식장
을 연결하는 구간은 중국풍 도시경관 디자
인을 접목한 중국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
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고용부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고용률 70% 목표

전남도가 지난 19일 나주에서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갖고 민선 6기 고용률 70% 달성, 취업자 수 5만명 증가, 청년일자리 2만 개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전남도도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구직 청년, 노동계 및 산업계, 시장·군수, 도의원, 대학 등 각계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낙연 전남지사와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자리 토론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취업박람회 등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전남’을 도정 목표로 삼아 ‘일자리정책실’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하고, 내년부

터 '일자리영향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농업예산(1조1000억원)에 비해 크게 미흡한 산업 분야 예산(800억원)을 연차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또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일자리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남도 취업박람회에는 도
내 261개 기업들이 참여해 1178개의 일
자리를 선보였다. /윤현석기자chadol@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 SK지리산 주유소
● 세이브클럽
● 서남대학교병원
● MFS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 ~ 20:00(연휴무휴)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가람여행사 수원점 [수원동 195 우리밀베이커리 2층]	062)955-5230
세정투어여행사 [삼정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명산구 월계동 첨단(다워 1층)]	062)431-0102

■ 여행상품 가격표에 기재된 유류할증료, 공항여료, 통관보통료, 관광진흥기금(가액), 운송/숙박/식음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임대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에 포함된 여행상품은 미지정(※) 유류할증료/유류할증률로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에 반영됨.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권은 가이드권에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되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구입을 지불하여야 한다.(※)지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에 한하여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후하투어) ■ 최초 출발일인 10월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철도(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